

사회 >> 3면

술잔 가득 '술' 대신 '제로 음료'... 20·30대의 달라진 일상 풍경

기획 >> 4면

대학생 연애 사업 - 당신의 연애는 안녕하신가요?

현장르포 >> 5면

봄은 짧으니깐! 봄을 제대로 만끽하는 다양한 방법

제599호

2026년 5월 14일(목)

각양각색의 동아리가 하나의 길을 이은 순간...

2026 동아리 알림제 성료

지난 4월 1일(수)부터 4월 2일(목)까지 제42대 '청연'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청연) 주최로 개최된 2026 동아리 알림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양일 모두 스폰스퀘어에서 진행됐으며, 각 동아리가 마련한 부스가 운영됐다. 둘째 날엔 부스 운영뿐만 아니라 청연이 준비한 생맥주 행사와 동아리 공연이 펼쳐졌다.

청연은 스탬프 투어, 인스타그램 팔로우 & 스토리 이벤트도 진행했다. 스탬프 투어는 부스를 운영하는 15개 동아리 중 5곳 이상을 체형하고 도장을 받은 후, 청연 본부에 있는 추천함에 넣으면 경품 응모 기회가 주어졌다. 1등 상품은 에어팟 4세대, 2등은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등은 배달의민족 상품권 만 원권이였다. 덧붙여, 청연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동아리 알림제 관련 스토리를 올리면 커피 쿠폰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복귀 이벤트, 스폰과 함께한 플라모이드 촬영 행사, 초맞추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학우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했다.

동아리 알림제는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됐다. 소떡소떡, 떡볶이를 파는 부스부터 휘트니스 휴스턴 헬트니스, 솜사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있어 학우들은 한껏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날 진행된 공연은 공연예술훈과 '워커스', '그라미', 'SDR', 전시창작분과 '에니뮤' 이 무대를 장식했다. 이들은 밴드부터 춤까지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청연은 동아리와 관련된 퀴즈도 진행해 정답을 맞힌 학우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하며 호응

을 얻었다. 모든 공연이 끝난 후, 이번 행사를 준비한 청연의 소개가 이어졌으며, 경품 추첨이 시작됐다. 호명된 학우는 무대 위로 올라와 소감을 전했다. 1등 추첨을 끝으로 학우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동아리 알림제는 끝을 맺었다.

[학우 인터뷰]

- 김정민(아태 26) / 동아리 가입자

Q. 동아리에 가입한 이유는?

A. 이번 동아리 알림제를 통해 보드 동아리 'OZ' 에 가입했습니다. 행사당시 OZ 부스에서 보드를 대여해 직접 타볼 수 있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보드에 큰 흥미를 느끼게 돼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Q. 동아리 알림제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A. 합합 동아리 'SDR' 의 공연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동아리 알림제 역시 축제인 만큼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행사의 분위기를 더 신나게 해준 SDR의 무대 덕분에 알림제의 열기를 마지막까지 느낄 수 있게 해서 인상 깊었고, 행사를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심화평 기자

(marksim@skuniv.ac.kr)

김호성 기자

(hosung@skuniv.ac.kr)

올 한 해 우리대학이 더욱 빛나길 - 2026 해오름제

지난 4월 2일 18시 30분경 본교 스폰스퀘어에서 '해오름제'가 개최됐다. 해오름제란 한 해 동안 진행되는 교내 행사가 사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치러지기를 기원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본교 총학생회를 비롯해 단과대학 운영위원장, 자치기구, 학과 회장단 및 수습부원 등이 참여했다.

제사는 인문과학대를 시작으로 △사회과학대 △이공대 △예술대 △융합대 △미래융합대 △총동아리연합회 △신문사 △총학생회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종이컵에 막걸리를 나눠 마신 뒤, 무대 중앙에 마련된 제사상에 두 번 절을 올렸다. 종교적 이유 등으로 절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묵념으로 이를 대신했다. 제사 이후에는 전통적으로 시행되던 사발식이 이어졌으며, 사회과학대부터 시작해 총학생회 회장단을 끝으로 모든 순서가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Co:Re 총학생회 윤정현(전자 22) 대외협력국장은 "신설 단과대학을 포함한 모든 자치기구가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 학우들을 위해 기획

된 모든 행사의 안녕과 성공을 염원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협력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만, 지금까지의 행사를처럼 올해 역시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호성 기자

(hosung@skuniv.ac.kr)

심화평 기자

(marksim@skuniv.ac.kr)

"제도적 혼선 줄이고자"... 27-1부터 '학자금 지원 구간' 체계 개편

교육부 산하 중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이 지난 2월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오는 2027학년도 1학기부터 학자금 지원 구간이 기존 10구간에서 5구간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른 구간 표에 적용해 정한 값이다. 2026학년도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구간과 1~10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내년 1학기부터 해당 구간은 기초·차상위 구간을 제외하고 1~3구간은 '가' 구간, 4~6구간은 '나' 구간, 7~8구간은 '다' 구간, 9구간은 '라' 구간, 10구간은 '마' 구간으로 개편된다.

학자금 지원 구간 값은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국내 소득·재산 조사 △학자금 지원 결정 및 통지 절차를 통해 산정된다. 소득·재산 조사에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평가액과 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 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이 반영된다. 통보된 구간 값에 이의가 있을 경

학자금 지원구간 개편 사전 안내

2027년 1학기부터 학자금 지원구간이 '가~마' 5구간 체계로 통합 개편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체계 개편

개편 목적: 학자금 지원구간 변동성 감소 등 대국민 수용성 제고
 개편 내용: 학자금 지원구간이 현행 10구간(1-10) 체계에서 동일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기준으로 재분류된 5구간(가-마) 체계로 변경 예정
 개편 시기: 2026년 사전 공표 후 2027년 1학기부터 적용

구분	구간	학자금 지원구간 체계 개편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현행 (2026년)	1구간	600만 원	440만 원	360만 원	100만 원							
	2구간	610만 원	505만 원	465만 원	135만 원	미지정						
개편 (2027년)	가	기초·차상위	가	나	다	라	마					
	구간	가	나	다	라	마						

▲ 출처 : 한국장학재단

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을 진행해 재심사받을 수 있다. 지원 구간 산정에는 통상 8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학적 또는 가구원 소득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신청'을 통해 1학기 산정된 값을 해당 학년도 2학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재단 측은 "현행 10구간 체계에 따르면 △1~3구간 △4~6구간 △

7~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동일할데도, 지원 구간 변동 폭이 크다"며 "5구간 체계 변경을 통해 지원 구간 변동 민감도 및 혼선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개편 취지를 밝혔다. 또 "개편 기준 지원 금액은 공지된 바가 없어 추후 개편 이후에 확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본교 학생상담센터, 위기 예방교육 진행

학생상담센터가 3월 17일(화)부터 5월 31일(일) 17시까지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위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위기 예방교육은 대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자살 사고 및 총동 △마약 오남용 △스마트폰 과의존 △도박중독 등의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는 교육이다. 위기 예방교육은 △자살 예방교육 △마약 예방교육 △도박 예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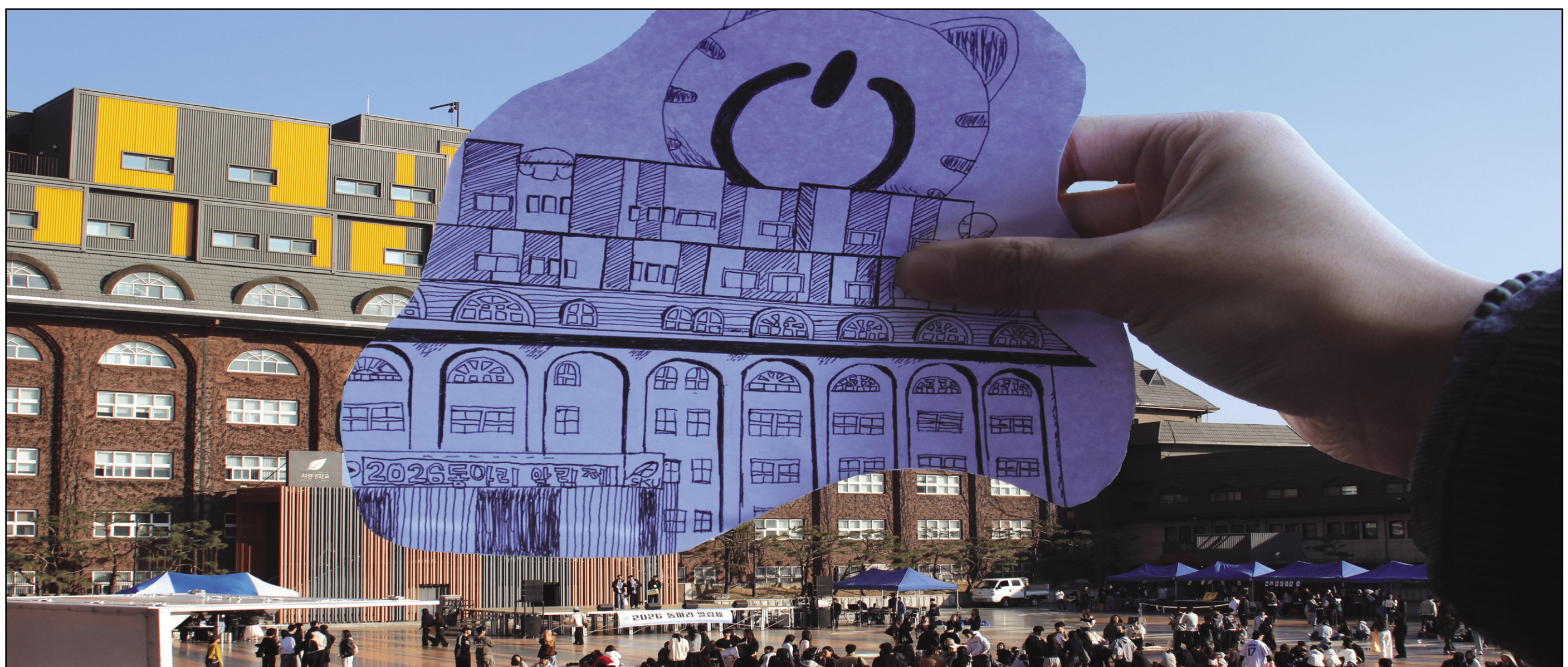
△스마트 과의존 예방교육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은 필수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강의이다. 교육 이수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며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과 포인트 3점을 지급한다. 비교과 포인트는 이수 기간 이후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위기 예방교육은 서경포탈 내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이수할 수

있다. 포탈에 접속 후 왼쪽 상단에 위치한 [학부] 위젯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택, 하단의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및 참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내역에서 '위기 예방교육'을 선택 후 '출결 및 학습'으로 들어가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위기 예방교육을 이수한 미래융합 학부2 경찰행정전공 A 학우는 "모든 강의가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내

용으로 구성됐지만,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이번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통해 내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학우들도 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본교, '해외취업연수사업 신청해진대학' 4년 연속 선정... 글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

우리대학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 School)'에 4년 연속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해외 진출이 목표인 학생의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고 해외 직무 역량을 개발한다. 교육 이후 미국에서 1년간 인턴십 기회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올해 '2026년도 해외취업연수사업 신청해진대학(이하 해외취업연수사업)'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했다. 이에 맞춰 본교 진로취업처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측은 4월 2일부터 17일까지 5회에 걸쳐 해외취업연수사업 설명회 및 선배 멘토링을 진행했다. 선배 멘토링의 경우, 회차마다 회계·IT 등 각기 다른 기업 및 분야의 인턴십을 경험한 선배가 방편해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했다. 이

는 서경포탈 내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사전 신청 후 참석할 수 있었다.

본 사업은 해외 취업 의사가 확실한 2026년 8월 또는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오는 8월 졸업 예정자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신청하고 2026학년도 2학기 과정 중 '해외취업연수과정'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수강 신청해야 참여할 수 있다.

해외취업연수사업은 오는 4월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 전형 △어학 면접 △심층 면접을 거쳐 대상 학생 20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학생은 6개월에 걸쳐 총 600시간의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다. 해당 과정에서 학생들은 6월 21일부터 7월 18일까지 1,100만 원 상당 비용을 전액 지원받아 필리핀 어학연수 기회를 얻는다. 이후 8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본교에



서 실무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모두 이수한 학생들은 외국어 졸업 요건, 졸업논문(작품 포함) 및 시험 등 졸업 인증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더불어 최대 15학점을 '해외취업연수과정' 교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P/NP 처리)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학생들은 국내 기업의 미국지사 또는 미국 기업, 미국 현지 한인기업 등에 취직할 예정이다. 연봉은 한화 기준 약 5,500만 원 내외로, 선발자에 한해 2026년 7월부터 기업 매칭이 시작된다. 취업 분야는 △비즈니스 △물류 △마케팅 △뷰티 △IT 등 개인별 희망 직무에 맞춰

알선이 진행된다. 근무 시작일 또한 2026년 10월~2027년 5월 중으로 개인별로 상이하다. 이때 미국 인턴 1년 비자인 J-1 비자를 취득한 후 출국이 가능하다.

지난 4월 6일 2회차 사업 설명회 및 멘토링 강연에 참석한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23학번 김다은(가명) 학생은 "학교에서 해외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것을 어렵지만 알고 있었는데, 설명회와 멘토링을 통해 지원 자격이나 준비 기간, 취업 분야 등을 명확히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내년 해외취업연수사업 선발을 목표로 준비해 볼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구석구석 알아보자! '온빛' 2026 캠퍼스 투어 진행



▲ 출처: 온빛

지난 4월 10일(금), 본교 홍보단 '온빛'이 우리대학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 새롭게 입학한 학우들에게 캠퍼스를 소개하고자 기획된 행사는 △학교 소개 △레크리에이션 △쉬는 시간 △캠퍼스 투어 △질의응답 △마무리 순으로 운영됐다.

레크리에이션은 '1초 노래 듣고 맞추기', '그림 이어 그리기' 등 최신 유행 게임들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단순한 학교 소개를 넘어 학과에 상관없이 학우들이 서로 어색함을 풀고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레크리에이션 1등에게는 서경후리스가, 행사에 참여한 모든 학우에게는 선물로 스크린마카롱이 제공됐다.

본격적인 투어는 유담관 1층에서 시작해 △수인관 △본관 △한림관 △은주 1·2관 △혜인관 △청운관 △대일관 △문예관 △북악관을 거쳐 9층 입구를 통해 다시 유담관으로 돌아오는 순으로 진행됐다. 단순히 건물 외곽을 도는 공식적인 루트 보다는 실제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동선을 중심으로 구성해 선배로서 알려줄 수 있는 실용적인 루트를 포함했다. 건물 간 이동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활용한 내부 동선도 함께 포함해 실제 학교생활에 가까운 루트를 경험할 수 있었다.

행사를 총괄한 이우정(아청 24) 온빛 홍보단장은 "우리대학은 작은 캠퍼스 안에 미로처럼 이어지는 길과 숨겨진 공간들이 많은, 재미 있고 특색 있는 곳"이라며 "학교를 직접 다녀보아 알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신입생들에게 빠르게 알려주고 싶어 캠퍼스 투어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가 개강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뤄져 신·편입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를 조금 지난 점이 아쉽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수험생이나 학부모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캠퍼스 투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첫 자체 행사라 긴장도 많이 했는데 참여 학우들의 밝고 적극적인 반응 덕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또 행사 준비 단계부터 함께 고생하고 각자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해준 단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참여 학우들에게는 "앞으로 학교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길 바란다"며 감사인사를 덧붙였다.

실제로 투어에 참여해 1등 상품을 수령한 임준우(미용1 26) 학우는 "학교에서 직접 제작한 후리스를 받아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한층 증가했고 받은 상품을 볼 때마다 캠퍼스 투어에 대한 추억이 계속 떠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레크리에이션 자체도 정말 즐거웠고 상품도 매우 만족스러웠다"며 "무엇보다도 선배님들께서 친근하게 행사를 잘 진행해 주셔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서먹한 거리 다 날아가라! 2026학년도 Major Design Camp 성료



▲ 출처: 서경TODAY

서경대학교 인성교양대학에서 주최한 2026 Major Design Camp(이하 MD 캠프)가 지난 3월 23일부터 3월 27일 총 4일간 이어지다 성황리

에 종료됐다. 이번 MD 캠프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MD 캠프 26학번 미래융합학부 1·2 및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MD 캠프는 FYP 디렉터가 진행하는 진로 설계 강의 등 입학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동아리 공연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교내 문화와 동아리를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이 외에도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과 동기들과의 교류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며 신입생 간의 유대감 형성이 격려됐다.

MD 캠프는 각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동기들과의 우애를 다지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MD 캠프에 참여한 우리대학 신입생 미래융합학부1 26학번 A 학우를 인터뷰했다.

Q. MD 캠프에 대한 후기가 있다면?

A. MD 캠프라는 이름 때문에 처음에는 교육 위주의 딱딱하고 제약이 많은 프로그램일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기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특히 학생회 선배님들이나 MC분들 덕분에 다양한 분들과 즐겁고 의미 있게 교류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A. 첫날 오후 8시에 진행된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당시에는 서로 서먹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모두

하나 되어 즐길 수 있었다. 레크리에이션을 기점으로 서로 더 많이 대화하고 친해질 수 있었기에 가장 뜻깊은 시간이었다.

Q. 후배나 다음 참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같은 분반 혹은 다른 분반 친구들과 함께 가는 첫 캠프이자 야외 활동인 만큼, 너무 수줍어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친해졌으면 좋겠다. 모두가 즐거운 1박 2일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같으니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좋은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

이우정 기자 (organicggfry@skuniv.ac.kr)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학술정보관 신입생 이용교육 실시



지난 3월 9일부터 시작해 본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2026년 1학기 학술정보관 신입생 이용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프레젠테이션과 시설 견학으로 구성돼 50분간 실시된다. 유담관 1층 소극장에서 프레젠테

이션으로 교육이 시작됐다. 목적은 △본교 학술정보관 연혁 소개 △시설 소개 및 사용 방법 △자료검색 방법 △학술 DB △연구학습지원 이용 방법 △도서관 서비스 △학술정보관 주최 행사 소개로 이어졌다. 우리대학의 상징과 학술정보관의 연혁, 그리고 유담관을 소개했다. 이어 학술정보관 층별 시설 안내와 현재 소장 중인 자료의 수와 종류를 설명했다. 이후 도서 자료를 찾는 방법과 도서 대출 시 주의 사항을 알렸다.

다음으로 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는 DBpia 외 학술 DB 이용 방법과

월비스, ITGO, 해커스강좌 시청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연구학습지원 이용 방법을 통해 참고문헌 작성과 학위논문 제출과 관련해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이어 자료구입신청과 RISS 서비스 설명, 열람 작성 발급과 그룹스터디룸·프레젠테이션룸 대여 방법을 설명했으며, 마지막으로 학술정보관에서 주최해 진행하는 필사, 전시, 행사 부스, 장학금 등을 소개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뒤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냈다. 문제를 맞힌 학생들에게 교내 카페 쿠폰

을 증정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다음으로 시설 견학이 이어졌다. 아직 시설이 익숙지 않은 신입생들을 위해 학술정보관 출입 게이트 통과 방법을 설명하며 8층 사회·이공과학 정보자료실로 이동했다. 8층에 도착해서 도서 검색 PC 사용 방법과 좌석 발급 등 시설 이용 방법을 설명했다.

이어 서가 구역 안내와 스테디룸·프레젠테이션룸을 둘러본 후, 9층 열람실을 소개하며 교육이 마무리됐다. 학술정보관 신입생 이용 교육을 들은 A(미용1 26) 학우는 "학술정보관의 시설들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스콘과 잘 지내길 바라, 입학키트 배부 진행



지난 4월, 26학번 학우들에게 신입생 입학키트가 배부됐다. 입학키트는 매해 신입생들에게 제공되지만, 올해는 키트의 구성이 달라졌다.

지난해 25학번을 대상으로 제공된 입학키트는 본교의 상징 색상인 녹색 바탕에, 우리대학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스콘이 그려진 상자에 제공됐다. 구성물로는 △삼색 볼펜 △서경대학교 메모지 △스콘 봉제 인형(이하 스콘 인형) △스콘키링 △스프링노트 △텀블러로 구성돼 있었다.

올해 26학번에게 제공된 입학키트는 스콘 캐릭터와 본교 상징들이 그려진 리우저블백에 담아 제공됐다. 기존 입학키트는 상자의 부피로 인해 많은 신입생이 포장을 버렸었지만, 올해는 가방에 담아 제공하면서 가르기 수월함과 동시에 실용성을 겸비했다. 구성품은 △2,500mAh 보조배터리 △스프링노트 △스콘 인형 △스콘아크릴 키링 △텀블러이다.

구성품 중 스콘 인형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대학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는 스콘 인형 옷 같이입히기 글이 게시됐다. 글을 접한 학우들은 인형이 귀엽다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신입생 입학키트를 받은 미래융합학부1 26학번 A 학우는 "입학키트를 받으면서 이제 진짜 대학 생활이 시작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학교생활이 기대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입학키트 중 어떤 구성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질문에 "스콘 인형과 스콘 아크릴 키링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면서 "스콘이 귀엽게 생겨서 좋았다"고 말했다. 또한 입학키트가 신입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말했다. "입학키트를 통해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친근하게 느껴졌고, 구성품을 사용하면서 소속감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입학키트 배부 이후, 커뮤니티에는 키트의 구성품을 따로 판매하는 글이나 구매를 원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 전부터 비슷하게 교내 굿즈 구매와 상시 판매를 원하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한 눈에 보는 이슈

<h3>정치</h3> <p>신속하게 VS 꼼꼼하게 ... 여·야 대립 속 17일 만에 통과된 26조 추경안</p>	<h3>경제</h3> <p>힘난한 국내외 경제 속 새로운 등불?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신형송 지명</p>	<h3>사회</h3> <p>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종량제봉투 대란, 기우인가 아닌가</p>	<h3>문화</h3> <p>술잔 가득 '술' 대신 '제로 음료'... 20·30대의 달라진 일상 풍경</p>	<h3>연예</h3> <p>비공개였던 옥택연 결혼식 장면 유출... 외국 팬들의 도 넘는 촬영</p>	<h3>스포츠</h3> <p>마라톤 신예 사웨 세계 기록 달성... 2시간 벽 넘었다</p>
---	---	--	--	--	---

※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는 이슈

신속하게 VS 꼼꼼하게... 여·야 대립 속 17일 만에 통과된 26조 추경안



출처: 연합뉴스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상정된 202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및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이 여야의 합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이 상정된 이유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오만반과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이 막혔기 때문이다.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LNG선(액화천연가스 수송 선박) 등이 지난다.

이에 따라 해외 에너지 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원유와 나프타,

질소비료 등 에너지 수급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는 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26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추경안 심사 방향을 놓고 지속적으로 마찰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처리해 신속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를 우려하며 대정부질문 진행 후 14~16일에 본회의를 열어 꼼꼼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5일 이 대통령은 SNS를 통

해 “이번 추경안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가 9조 7천억 원에 달한다”며 “지원금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세 부담금 1조 3천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방 재정 여력은 8조 4천억 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근거로 야당의 지방 부담 증가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북을 통해 “지방정부는 강제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협조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

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들은 결국 1조 3천억 원의 현세를 부담해야 하고, 재정이 열악한 곳일수록 더 많은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빚을 내서 돈을 뿌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참고: 대전일보).

이후 4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공방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OECD가 에너지 공급망 충격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7%로 내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며 “추경을 얼마나 신속히 편성하느냐에 따라 이를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다시 추경을 하게 되면 환율이 오를 수 있다”며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 ‘고물가 경기 침체의 초기 단계’라 주장했다.

7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입”,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선거용 추경”이라며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4월 10일 양당의 원내대표가 추경안 관련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은 기존 추경안에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안을 유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1,000억 원,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 2,000억 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유가 보조금 신설과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했다.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험난한 국내외 경제 속 새로운 등불?...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신형송 지명

험난한 경제 상황 속 퇴임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으로 신형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지명돼 지난 4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무대에 올랐다. 신형송 후보자(이하 신 후보자)는 오랜 기간 국제기구와 학계를 넘나들며 거시 경제 및 국제금융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은 인물이다. 신 후보자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대내외적 경제 상황이 악화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통화정책을 조율할 새로운 수장으로 발탁됐다.

1959년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사우샘프턴대 △옥스퍼드대 △런던정치경제대(LSE) △프린스턴대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강단에 섰다. 또 2010년 당시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맡아 현실 정치와 정책 실무를 경험하기도 했다.

특히 2014년에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에 아시아인 최초로 경제 보좌관 겸 조사국장으로서 임명돼 약 10년간 글로벌 통화정책의 핵심 의제를 주도해 왔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불안정한 세계경제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와 더불어 최근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 달러 강세와 고환율 흐름이 장기화되고 있다.

또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해외 투자로 인한 자금 유출 현상까지 겹치면서 외환시장의 긴장감이 크게 높아진 상태다. 즉 신 후보자는 중동 사태 이후 논의되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국내 경제 성장률과 물가를 방어해야 하는 어려운 과



출처: 연합뉴스

제를 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신 후보자가 마주한 어려움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높은 외화 자산 비중과 가족의 신상 관련 쟁점들을 원만히 소명해야 할 과제를 마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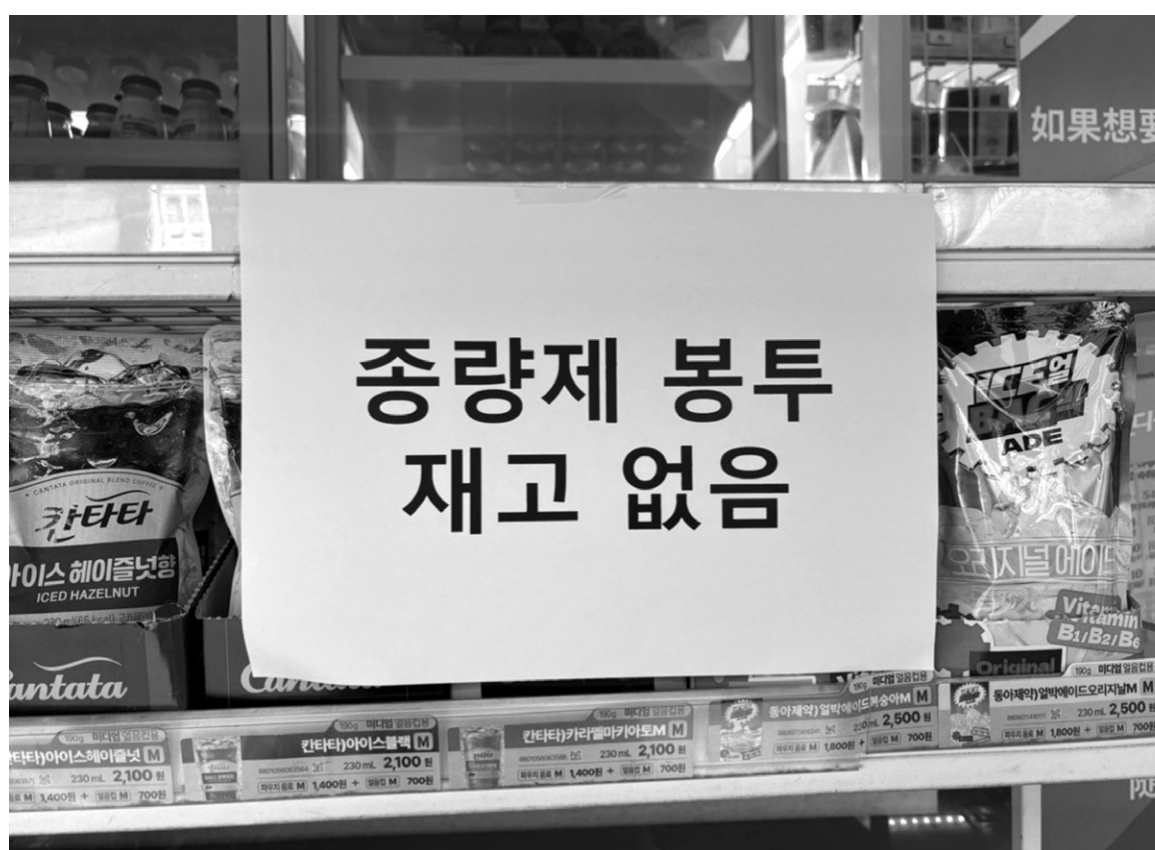
신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유연한 정책 운용을 예고했다. 이후 신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회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처럼 유가에 민감한 경제에서는 유가 충격이 상당히 큰 만큼 물가에 무게를 두겠다”고 말했다. 또 신 후보자는 “중동 위험이 계속 진행돼 근원 물가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전이돼 2차 파급효과가 생긴다면 통화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계적으로 물가 지표에만 얽매이지 않고 금융과 실물 경제의 연계성을 종합적으

로 판단해 유연하게 결정하겠다는 자신의 철학을 드러낸 것이(참고: 한국경제).

40년간 해외 무대에서 축적한 폭넓은 네트워크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수장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가 시장과 여론이 주목하는 핵심 대목이다. 신형송 차기 한국은행 총재가 불확실성의 파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안정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유승윤 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종량제봉투 대란, 기우인가 아닌가



중동 전쟁의 장기화가 전국 곳곳에서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을 불러왔다. 한국 석유화학 업계는 나프타의 절반가량을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온다. 하지만 이번 중동 전쟁으로 해협이 막히며 원료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이 소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종량제봉투 품질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즉각적으로 진화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평균 3

개월 이상의 종량제봉투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기후부는 종량제봉투의 공급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재기로 인한 품질 사태는 이미 발생한 뒤였다. 또한 기후부는 종량제봉투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인당 구매 수량을 1매로 제한하고 있다.

미래융합학부1 경영계열 A 학우는 “소셜미디어에서 다들 50매, 100매씩 대량 구매했다는 글을 보고 집 앞 마트에서 50매를 샀다”며 “사고 난 다음 날부터 대란 기사가

나오길래 미리 사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종량제봉투 대란을 언론에서 부추긴 ‘패닉바이닝’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6년 전 코로나로 인해 옷단까지 붙여 구매하던 마스크 대란 사태와 다르게 이번 종량제봉투 대란은 원료 공급의 불안으로 인한 단순 의심에서 초래된 결과인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이번 대란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던 마스크 대란과 다르게 구매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마스크는 실제로 급증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오지 못했다. 하지만 종량제봉투는 여유분이 있는 상태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불안 심리에 의해 일어난 품질 현상이기 때문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국내 재활용업체의 재생 원료 보유량은 2024년 종량제봉투 총판매량을 웃도는 수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총 18억 3,000매를 생산할 물량이 확보돼 있다. 결국, 언론에서 언급하는 봉투 대란은 1년 이상의 중동 전쟁 장기화, 정부가 원료를 확보할 대체 수입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약조건들이 충족돼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언론들이 일부 사례를 확대 해석해 소비자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야말로, 봉투 대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나프타 수급 불안과 원료 부족 우려에 대응해 재생 원료 기반 종량제봉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식물성 전분을 원료로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종량제봉투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중동 전쟁 이후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되면서, 재생 원료 기반 종량제봉투 도입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관측되고 있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ey050317@skuniv.ac.kr)

술잔 가득 ‘술’ 대신 ‘제로 음료’... 20·30대의 달라진 일상 풍경

최근 국내외 젊은 층의 음주 문화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4년 19~29세 가운데 ‘비음주 또는 월 1회 이하 음주’ 비율은 56.0%로, 2005년 조사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출처: 동아일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월간 음주율도 57.1%로 전년 대비 1.2%p 감소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올해 초 미국 주간지 ‘타임(TIME)’은 젊은 층의 음주율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3년 갤럽 조사에서도 미국 35세 미만 성인 가운데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응답은 지난 20년간 10%p가량 감소했다.

일본 역시 연간 주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술을 멀리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시라후’, ‘알코올 바나나’와 같은 신조어도 등장했다(참고: 농민신문).

이 같은 감소세의 배경으로는 대학가 분위기의 변화가 우선 지목된다. 과거 신입생 환영회나 동아리, 학과 모임에서 관행처럼 이어지던 반강제적 술자리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모임이 줄어들어, 회식 중심의 폭음 관행이 개인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생활 방식의 변화도 한몫했다.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와 ‘헬시 플래저(Healthy Pleasure)’ 등 생활 트렌드 측면에서 건강과 자기 관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음주 문화에 의문을 가지고, 맨정신(Sober)을 추구하면서 운동, 취미, 자기 계발 등 다른 활동을 택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은 주류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청에 따르면 국내 주류 출하량은 최근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해당 업계는 제품 고급화와 다각화를 통해 앞다퉀 대응에 나섰다. 하이틴으로는 무알코올 맥주를 출시하며 소비층을 세분화하고 선택지를 넓혔고, 롯데칠성음료는 과일 동결 침출 공법과 무설탕 콘셉트를 결합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참고: 프라이밍경제).

반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업종도 있다. 코리아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년 대비 사업체 수 감소 폭이 가장 큰 업종은 캐주얼 바와 맥주 펍이었다. 주류 중심 상권이 위축되면서 일부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음주 문화의 축소와 그 영향에 관해 묻자 우리대학 재학 중인 A 학우는 “신입생 때 술을 좋아하지 않아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술 강요는 좀처럼 찾



출처: 디자인코리아

아보기 어렵다”며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사회가 편안하다”고 전했다. 또 “비록 건강한 문화현상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대리 연애의 시대 :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열풍

〈하트시그널〉, 〈환승연애〉, 〈솔로지옥〉 등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텔레비전이나 넷플릭스, 티빙 등 OTT 메인 화면에 자주 등장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시청은 시청자를 출연자들의 감정 변화와 관계 형성 과정에 깊이 몰입하고 공감하도록 이끈다. 또한 어떤 참가자들이 이어질지 소셜미디어 등에서 서로의 추리를 공유하며 화제성을 키운다. 이렇게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도 〈사랑의 스튜디오〉나 〈짝〉과 같은 연애 프로그램이 존재했다. 하지만 2017년 등장한 채널A의 〈하트시그널〉이 연애 프로그램의 새로운 표본을 열었다. 일반인들이 속소에 모여 활동하는 것은 기존과 비슷하지만, 관찰 예능 요소를 도입한 점이 색다르다. 관찰자이자 분석자로 등장하는 패널들은 출연자들의 행동과 대화를 단서로 감정의 흐름을 추리하며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더한다. 해당 방송이 새로운 형태의 연애 예능으로서 도약에 성공하자 〈환승연애〉, 〈솔로지옥〉 등 기존 설정에 변주를 준 다양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초인 〈하트시그널〉은 참가자들이 '시그널 하우스'라는 특별한 공간에 모여 일주 규칙 아래에서 나이와 직업은 공개하지 않은 채 대화와 매너로 상대를 알아가게 하는 예능이다.

이러 티빙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환승연애〉는 이별한 커플들이 한 집에 모여 과거의 연애를 되짚고 새로운 인연을 마주하며 사랑을 찾아가는 예능이다. 참가자들은 한 공간에서 약 3주간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이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옛 연인과의 재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측단으로 나오는 패널 중 정신과 전문의가 등장, 명확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추론해 시청에 재미를 보였다.



출처 : 좌 티빙 우 넷플릭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에서 '한국판 투투'를 내걸며 제작한 프로그램 〈솔로지옥〉은 무인도에 갇힌 남녀가 누군가와 커플이 되면 탈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매칭 성사 여부에 따라 지옥도와 천국도에서 생활하게 된다. 앞선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커플 피규어 커플 모자 뺏기 등 '커플 게임'을 진행해 차별화된 내용을 보여줘 시청자의 이목을 끌었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인기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평범한 것을 향한 열정, 일반적이고 보통의 정서를 추구하는 '노멀 크러시'의 유행으로 관찰 예능의 인기가 높아진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대리만족의 효과 때문이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리만족을 위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는 사람이 20.1%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부담이나, 여유 부족 등의 이유로 현실 연애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연애에 대한 욕구를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채워, 해소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 속에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학생 연애 사업 당신의 연애는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1일, 여러 명장면을 낚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끈 〈환승연애4〉가 막을 내렸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솔로지옥5〉 역시 엄청난 화제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잠시 연애 프로그램의 인기가 식나 싶었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다. 이에 4월부터 〈하트시그널5〉가 방영을 시작하며 연애 리얼리티의 견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연애 프로그램은 단순히 '선남선녀'의 만남에서 그치지 않는다. 연애에 서툰 이들의 고군분투를 담은 〈모태솔로지옥〉 연애는 하고 싶어하지만 연애인 부모의 시선에서 자녀의 연애를 관찰하는 〈내 새끼의 연애〉, 부모가 직접 자녀의 짝을 찾는 〈합쇼 맞선〉까지, 방송 유형은 날이 다양해지고 정교해지는 추세다.

이렇듯 TV와 OTT 플랫폼이 연일 자극적인 설정과 설레는 서사를 앞세운 콘텐츠를 쏟아내고, 대중은 이를 소비하며 대리 만족을 느낀다. 어느새 연애는 직접 발 담그기보다 구경하기 좋은 하나의 '시청각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연애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떨어졌지만 시청자들은 식막한 하루를 살아내기 바쁘다. 화면 속 남의 연애에는 열광하면서도 정작 나의 연애에는 인색해진 지금,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청년들의 연애 현주소다.

이에 본지는 연애 리얼리티 열풍의 이면과 현실 청년들이 마주한 거대한 연애의 벽을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한다.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갈등과 이별, 재회를 전사하는 콘텐츠들이 왜 20대의 시간을 점유하게 됐는지, 연애가 '경험'이 아닌 '소비'의 대상으로 변모한 과정을 짚어본다.

나이가 시대별 연애관의 변천사를 통해 남만이 사라진 자리를 분석하고,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실제 대학생들의 연애 상황을 알아본다. 설렘이라는 환상과 생존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20대. 그들이 써 내려가는 연애의 현주소는 어떻게?

'연애'와 '사랑'은 사치? 더 이상 필수불가결하지 않은 것들

대학 생활의 로망 중 하나인 '캠퍼스 커플(CC)'은 이제 옛말이 된 듯하다. 만 19~27세 대학생 또는 기타(졸업생, 취준생 등)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본지가 지난 4월 한 달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설문 결과, 현재 연애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소수(30%)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과거 연애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거나(37.5%), 아예 연애 경험이 없었다(32.5%). 연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도 "살에 필수적"(33.8%)이라는 답변보다 "굳이 필요하지 않다"(45%)는 응답이 앞섰으며, "잘 모르겠다"(21.3%)는 의견도 상당수였다.

특히 과거 세대와 비교했을 때, 20대가 연애를 바라보는 태도는 어떻게 변했느냐는 질문에는 "연애가 덜 중요해졌다"는 답변이 71.3%로 주류 의견을 차지했다. 이어 "연애가 더 중요해졌다"(17.5%), "변하지 않았다"(1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청년들이 생각하는 주된 사회 요인은 비슷했다. △개인주의의 확산(31.6%) △학업과 일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27.6%) △물가, 취업 등의 경제 상황(21.2%) △연애에 대한 인식 변화(15.8%) 등이 골고루 지목됐으며, 위 선택지가 모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외모 비하와 평가가 난무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연애를 가로막는다는 의견이었다.

이들은 개인주의의 확산과 함께 연애로 인한 감정 소모의 피로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청년들이 연애를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의외로 '데이트 비용 등의 비용 부담'(22.6%)이 아닌 '감정 소모 및 스트레스'(39.6%)였다. 연애를 주저하는 이유로 경제적 여건보다 심리적 불안정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시간 투자의 부담'도 30.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감정이 중요 요소가 되자, 연애를 시작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로 '성격 및 가치관'이 71.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스트레스받지 않는 실재 없는 연애를 추구하다 보니 상대의 내면을 간간하게 파지게 되는데, 정작 선호하는 만남 방식은 '소개팅'(6.3%)보다 '자연스러운 만남'(78.8%)이었다.

결혼과 연애의 연결고리도 느슨해졌다. 많은 이들이 "연애와 결혼은 별개"(27.5%)라고 답하거나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없다"(28.7%)고 답했다. 특히 "연애는 감정만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결혼은 물질적 조건과 가치관 모두 맞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답변은, 연애가 더 이상 미래를 약속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준다.



출처 : 한경매거진&북

대학생-직장인 커플의 '어른 연애'와 대학생 커플의 '뜻뜻함'

20대 연애는 대학생과 직장인 커플 혹은 대학생 커플의 연애가 주를 이룬다. 같은 20대라도 처한 환경에 따라 사랑의 방식과 연애를 하면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고민은 달라진다. 아래는 본지 인터뷰에 응한 3살 연하 대학생과 사귀고 있는 직장인 김수지(가명 · 27 · 여) 씨와 동갑내기 대학생과 만나고 있는 24살 대학생 김우빈(가명 · 24 · 남)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들은 20대만의 청춘을 즐기는 한편, 시간과 비용 문제 등의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안고 있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연애를 이어가는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Q. 만나게 된 계기가 있나?

A(김수지). 카페에 있는데 피지컬 좋은 등지킨 사람이 눈길을 끌었다. 평소 자연스러운 만남을 선호하는데 직장인이 되면 대학생 때와 달리 만남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물어보고 연락을 시작했다.

Q. 대학생 때와 직장인이 된 후의 연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A(김수지). 대학생 때는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직장인은 주말 외에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만남이 제한적이다. 시간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진다.

Q. 연애를 하면 경제적인 문제와 같이 현실적인 고민도 있을 텐데.

A(김수지). 직장인인 내가 더 큰 비용을 부담하려고 한다. 남자친구는 대학생이고 나보다 어리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더치페이보다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부담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Q.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A(김우빈). 군 복무 중 후임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됐는데 인스타 속 여성분이 마음에 들어서 소개해 달라고 했다. 외출이나 휴가 때 만나면서 사귀게 됐다.

Q. 대학생과 대학생의 연애는 어떤가?

A(김우빈). 같은 대학생 신분으로 만나다보니 서로 연애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이 좋다. 고등학교 시절과 달리 이제는 제약이 없는 성인으로서의 연애를 하고 있어 더욱 자유롭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Q. 대학생은 생활비, 등록금 등 투입 비용이 많다. 경제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을 텐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나?

A(김우빈). 연애하면 들어가는 돈이 많을 수밖에 없다. 월세나 생활비 등의 비용은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 등을 통해 충당하는 편이다. 데이트 비용은 더치페이나 번갈아 계산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어 크게 부담은 없다.

이처럼 대학생 커플과 대학생-직장인 커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이어가고 있었다. 대학생과 직장인의 연애는 흔히 말하는 '어른 연애'라고 표현할 수 있다. 데이트 비용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직장인이 조금 더 지불하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데이트를 이어갈 수 있지만, 시간적인 제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대학생 커플은 비슷한 환경 속에서 뜻뜻한 연애를 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제약 등 현실적인 문제도 동반됐다.



출처 : 데일리한국

20대 '연애'와 '사랑', 그럼에도 필요한 이유

앞선 통계와 본지 설문 결과에서 나타나듯, 대학생을 포함한 20대 청년의 연애에는 자발적 비연애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소극적·부정적 인식이 확산해 있다. 실제로 만 19세 이후에 연애 경험이 없는 응답자도 설문 응답자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과거 청년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3포세대'로 불리던 청년층의 포기 항목은 '5포', '7포'로 늘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가 포기할 의향이 있는 항목으로 '결혼'이 38.6%로 가장 높았고, △출산(33.2%) △내 집 마련(28.7%) △꿈(26.2%)이 뒤를 이었다. 연애 역시 16.1%로 나타나 △시간관계(15.4%) △취미생활(14.7%) △여행(14.0%)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층에 연애가 더 이상 필수적 삶의 요소로 간주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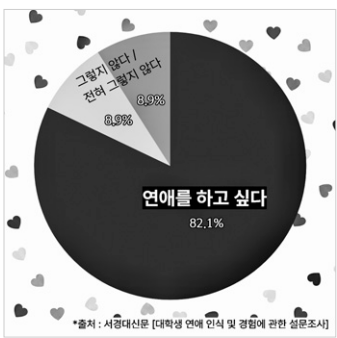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러한 쓸쓸한 흐름 이면에 또 다른 양상이 존재했다. 설문에서 만 19~27세 대학생 또는 기타(졸업생, 취준생 등) 상태의 청년 82.1%는 "연애하고 싶다"라고 답했다. 또한 "현재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연애 생각 없음"(10.9%), "경제적 부담"(9.1%)보다 "적절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가 약 6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연애 자체에 대한 기피보다 관계 형성의 기회 부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연애를 미루는 현실 속에서도, 20대에게 연애는 여전히 중대한 과제이다. 이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설명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연애는 개인의 사회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사회화는 타인과의 대면을 통해 다양한 사고방식과 감정 표현 방식을 학습하는 과정인데, 연애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다. 특히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조율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기성찰이 촉진된다.

반대로 연애 경험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개인의 경험 세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김정영은 "나"의 성장과 경험으로서 연애의 재구성,에서 이를 "사회적 배태성에 갇힐 수 있는 상태"로 설명한다. 유년기의 좁고 개인적인 경험에 머무른 채 세계와의 관계 확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개인의 성장 기회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현대 사회 구조 역시 연애 양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제시된다. 오세일·박태진의 「대학생의 연애와 행복」에 따르면, 고도로 합리화된 사회에서 개인은 불확실성과 실존적 불안을 크게 경험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연애는 결혼 혹은 낭만적 관계를 전제로 하기보다, 현재의 감정과 관계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즉, 연애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20대에게 연애는 불안정성을 감내하며 현재를 긍정하고 행복을 탐색하는 관계로서 기능한다.

결국 20대의 연애는 다소 식막한 현실 속에서도 자아 성장, 행복 추구 등 자아 성장 가능성이 공존한다. 비록 불편하고, 때론 아플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 청년에게 '연애'란

모든 사람이 연애보다도 진실된 '사랑'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경험을 해보면 좋겠고,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든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길 바랍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한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이 멋진 것 같아요.

20대의 연애는 서툴지만 그만큼 하나하나가 값진 경험인 것 같다. 다들 사랑해라!

10대의 입시 생활을 마치고 어른이 된 시기. 이성교제 만나 시야가 넓어지고 실패와 성공, 그것에 맞게 아픔과 성취감을 깨닫는 경험 중 최정점이라 생각합니다.

연애하고싶다 연애하기싫다 연애하고싶다 연애하기싫다

굳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굳이 만나려고 애 쓸 필요도 없다. 좋은 인연이 들어왔을 때 만 나도 늦지 않다.

연애 자체가 낭만적인 것이기에 경제적, 시간적인 손해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20대만 큼은 모두가 그런 낭만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20대 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이후 결혼이나 연애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 도요.

신중히 만나야 된다

봄은 짧으니깐! 봄을 제대로 만끽하는 다양한 방법

헤인관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어느새 책상까지 와 우리의 시선을 자극한다. 무겁고 두꺼웠던 패딩을 벗어 던지고 기분 좋은 온기가 느껴질 때, 우리는 깨닫는다. 점점 날아가 되어가는 봄이 왔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대학생에게 봄은 더욱 짧게 느껴진다. 이 시기는 중간고사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계절을 만끽하기도 전에 공부와 과제가 쏟아진다. 스쳐 지나가기에

더욱 애뜻한 이 계절을 어떻게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을까?

이에 본지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봄나들이 지점을 찾아왔다. 단순히 맛집이나 소셜 미디어에 나온 명소 대신, 대학생의 시선과 걸음으로 구성했다. 이번 취재는 매일 지나치는 일상 속 풍경이 봄이라는 필터를 만났을 때 얼마나 다르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 알아냈다.

이번 르포에선 학우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 네 가지 지점을 소개한다. 누군가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풍경 속 흔적과 유행을 따르는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골목 산책',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운동과 스트레스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한강 따릉이 루트', 낮과 밤의 반전 매력을 선사하며 도심의 낭만을 즐기는 '드라이브 명소', 마지막으로 등산의 문턱을 낮춰 입문자

도 오르기 좋은 '초보용 산행' 까지.

각 코스에는 기자들이 직접 체험하며 느낀 감상과 놓치면 아쉬운 숨은 명소와 이용 팁까지 담았다. 봄은 이 순간에도 지나가고 있다. 꽃잎이 다 지고 난 후보단 지금, 이 순간의 생동감을 기억하는 편이 훨씬 낭만적이다. 여유가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밖으로 나가보자. 일상 속 공간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철과 예술, 그리고 사람들의 골목 '문래창작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의 문래창작촌은 카페와 전시 공간, 그리고 철공소가 공존하는 골목이다. 이곳은 원래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어진 철강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철공소가 밀집한 곳이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개발 열풍이 사그라들며 수입이 줄어든 공장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문을 닫았다. 공장이 떠난 빈자리에겐 저렴한 임대료가 남았고, 배고픈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삭막한 폐공장의 풍경 속에 각종 설치 미술 작품과 벽화가 채워지고, 골목의 다채로운 예술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렇게 문래창작촌은 철공소와 전시장, 감성적인 예술 작품들이 공존하는 이색적인 골목길이었다.

문래역 7번 출구에서 200m 정도

지나면, 골목의 시작을 알리는 용접 가면 조형물이 보인다. 뒤편에는 여러 갈래로 뻗은 골목들과 여전히 운영 중인 철공소가 보인다. 골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 외벽에 그려진 개성적인 그래피티와 골목 본연의 레트로함을 살린 다양한 카페를 볼 수 있다. 주점부터 하와이안 음식을 파는 음식점까지, 골목이 가진 개성은 단지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골목의 생활 전반에 퍼져 있다.

문래창작촌에는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을 찾아보는 묘미가 있다. 공간을 알리는 간판은 눈에 띄게 제작되지 않고, 원래 있었던 것처럼 주변의 건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기자는 철강회사들로 이뤄진 건물 사이, 지하로 내려가는 공연장 '숄세권 라이브'가 가장 인상 깊었다. 오래된 간판과 건물 외벽 사이, 문틀 주위를 덮은 푸른 덩굴과 작은 나무 간판은 철과 콘크리트로 덮인 골목 사이에 핀 자연 같이 느껴졌다. 공연장 내부는 자연 속의 무대처럼 꾸며져 있고, 다양한 아티스트를 초청해 공연한다. 공연 수익의 일부는 건 강한 도시 생태계를 만드는 환경 시

민단체 '생명의숲'에 기부, 도시 숲 조성에 동참한다는 것 또한 인상 깊게 다가왔다.

숄세권 라이브 공연장의 맞은편 골목에는 흰색 페인트칠이 된 건물, 아트필드 갤러리 가 나타난다. 문턱 없는 오픈형 갤러리와 아트필드 갤러리는, 1관부터 5관까지 갤러리 문래 골목 숲길에 포진해 있다. 문턱이 없는 만큼, 길 곳곳의 전시관에서 여러 작가의 전시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문래창작촌 탐방을 마치고 쉴 공간을 찾았다면, 문래역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시그니처 카페부터 커피까지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LP바 '해방음'을 추천한다. 바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따뜻한 색의 조명과 한쪽 벽을 가득 채운 LP판 책장이 눈에 들어온다. "음악으로 해방을 느끼는 공간"이라는 바의 이름답게, 울드 팝부터 락까지 폭넓은 장르의 음악으로 취향을 가리지 않는 해방감을 선사한다. 하루의 마무리로 유럽의 울드 재즈 바 같은 아늑한 분위기를 즐기면서 전시와 예술 작품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끽하는 것은 어떨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바라보는 봄 풍경...안양천 따릉이 코스

1호선 구일역 인근 구일고등학교 정문에는 따릉이를 빌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따릉이 앱에서 이용권을 구매하면, 따릉이 뒷바퀴에 자리한 QR코드를 전용 앱을 통해 스캔하면 효과음과 함께 잠금장치가 풀린다. 구일역 1번 출구 쪽으로 가면 바로 안양천을 만나볼 수 있다.

오늘 선택한 코스는 구일역을 시작으로 안양천을 따라 남쪽으로 달려 금천구청역까지 가는 구간이다. 총 6.5km로, 약 40분 정도 걸린다. 본격적으로 페달을 밟으며 봄나들이를 시작했다. 내리막길로 시작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탁 트인 하천 너머로 불어오는 봄바람은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잠시나마 해방해 줬다. 한참을 달리다 눈에 띄는 것은 철산교 인근에 조성된 툼플 단지다. 붉고 노란 툼플들이 규칙적으로 심겨져 있고, 사진을 찍기 좋은 구조물과 벤치가 있어 곳곳에 기념사진을 찍는 시민들이 많았다. 이 외에도 길 공간이 많아서 피서 나온 분들도 여럿 있었다. 자전거를 세우고 바라본 풍경 속에는 여유를 즐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가득했다. 자전거 도



로와 보행로가 명확하게 분리돼 천천히 속도를 내도 무리가 없어 나만의 페이스로 갈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물론 고충 또한 있었다. 코스 중간 중간마다 오르막길이 있어 따릉이의 기어를 최저단으로 해도 올라가는 데 무리가 있었다. 온 힘을 다해 페달을 밟아도 쉽게 않아서 결국 끌고 가야 했다. 그럼에도 오르막 끝엔 꽃잎이 휘날리는 나무들이 펼쳐져 있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꽃들을 감상하기도 했다. 기자가 방문한 시기는 벚꽃이 진 나무가 많아서 개화한 시기에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릉이를 처음 접하는 학우를 위해 이용 방법을 소개한다. '서울자전거 따릉이' 앱을 설치하고, △일일권 △

정기권 △가족권 △선물 등 다양한 선택지로 이용권을 구매한다. 이후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이용하면 된다. 이 외에도 기동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타미니 GO' 앱을 통해 등록하면 한 시간 혹은 두 시간 이용권이 무료로 발급된다. 일일권 한 시간 기준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데 부담이 없다.

반납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몇 가지 있다. 지정된 대여소에서 반납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잠금장치가 제대로 체결됐는지 확인해야 추가 요금을 결제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기자가 방문한 구일역, 금천구청역 모두 인근에 반납소가 있어 반납하기 어렵진 않다.

목적지인 금천구청역에 도착해 자전거를 끌고 대교를 건너면, 반납소가 기다리고 있다. 정해진 절차를 통해 반납 후 벤치에 앉아 쉬며 이번 나들이를 마무리했다. 강의실과 집만을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작은 번수를 만드니 일상이 특별해지고 위로받을 수 있었다. 찻나의 순간이 된 봄이 지나가기 전에 즐겨보는 걸 추천한다.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한눈에 담다, 남산 드라이브

기자는 서울의 봄을 느낄 수 있는 남산 드라이브 코스를 구성해 다녀왔다. 서울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는 많지만, 남산처럼 서울의 봄을 파노라마로 담을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다.

14시쯤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출발했다. 이곳은 북한산과 가까워 북한산 인수봉을 보며 갈 수 있었다. 삼양로, 도봉로, 종암로를 지나며 바람에 실랑거리는 가로수들과 주말에 여유로운 서울 도심을 구경하며 갔다.

안암로에 다 달았을 때 우측에 고려대학교가 보였고, 이후 종로서부터 고층빌딩이 즐비했다. 종로 끝 지점에서 흥인지문이 맞이했다. 현대적인 건축물 사이, 조선시대 향안을 느낄 수 있는 건축물로 서울만의 특색있는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장충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동대문디자인 플라자가 보였다. 좁 전에 흥인지문이 서울의 과거 미를 보여준 것과 달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서울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5분 정도 지났을 때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점인 태극당과 장충체육관, 장충단공원이 있었다. 딸찍이 목적지인 N서울타워가 푸르려진 산

위에 우뚝 보였다.

남산 길을 도는 소월로를 가로질러 남산공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남산공원 주차장은 1시간 1,920원에 주차할 수 있다. 이 외에 인근에 주차하기에 마땅한 곳으로 남산케이볼파크 주차장(1시간 3,000원)과 소파길노상 주차장(1시간 4,080원), 우리금융디지털타워 주차장(명일 1시간 2,800원)이 있다.

차에서 내려 남산공원길을 따라 올랐다. 오르는 길이 힘들었지만, 다양한 꽃과 나무를 보며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한참을 올라가 N서울타워 앞에 도착했다. 타워의 압도적인 크기에 고개를 끝까지 올려도 한 눈에 안 들어왔다. 타워 하단으로 가니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따라가 뒤를 돌아보니 광화문 거리부터 잠실 롯데타워와 여의도 그리고 우리대학 등 서울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풍경을 감상하고 남산공원 안내센터 쪽으로 가니 한양도성이 끝도 없이 남산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도성과 나무 사이로 햇빛이 들며 식물들과 풍경을 돋보이게 했다. 남산을 전부 둘러보고 01A번 버스를 타 다시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남산공원은 낮에 방문하면 계절에 따른 변화를 느끼기 좋고, 밤에 오면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적의 드라이브 코스이다. 여유가 된다면 광화문 방향으로 드라이브하거나, 강변북로를 지나며 한강을 보는 것을 추천한다.

드라이브는 총 16km로 50분 정도 소요됐다. 연료비는 휘발유 1종(승용차, 소형 승합차)에 연비 효율 1등급(16km/L 이상)을 기준으로 2,000원 정도가 들었다.

드라이브 코스에서 아쉬웠던 점은 남산에 주차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었다. 만일 남산만 방문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봄이 지나기 전, 남산 드라이브를 추천한다.



백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시작점, 불암산 백세문

불암산은 서울시 노원구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에 걸쳐있는 높이 508m의 바위산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산치고 낮은 산이다. 불암산은 송낙을 쓴 부처의 모습과 비슷해서 불암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또 불암산은 길게 뻗은 능선과 초보자도 오르기 쉬운 산길이 존재해 가벼운 등산을 하기 최적의 산이다.

오늘 소개할 등산 코스는 불암산 정상까지 가는 코스가 아니다. 가벼운 등산이기에 불암산 중턱쯤에 위치한 불암산성 까지가 오늘의 목적지다. 등산 난이도는 상중하 중 하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에서 하차해 1132번 혹은 1143번 버스를 타고 원자력병원·공릉해링턴플레이스 정류장에 내리면 바로 우측에 불암산 백세문이 눈앞에 서 있다. 알뜰달록하면서 목격한 텃밭을 뽐내는 문을 지나 걷다 보면 본격적인 등산로에 진입한다. 등산로에 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화장실과 벤치가 나온다. 혹시라도 화장실에 갈 예정이라면 이곳을 사용하고 벤치에 앉아 마지막으로 몸 상태를 점검하고 가벼운 준비운동을 하자.

불암산 백세문에서 시작해 헬기장까지 가는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느끼는 것은 바로 경사가 완만하다는 점이다.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는 경사는 산행의 부담을 착실히 덜어준다. 또 불암산의 정상 부근은 비위가 많지만, 그전까지는 흙과 계단으로 이뤄져 있어 발에 물집 잡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계속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불암산성에 도착한다. 불암산성까지 가는 길이 계단이 좀 있지만 하지만 아주 오를만하고 중간중간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이 정말 아름답다. 불암산성은 산성이 많이 훼손돼서 드문드문 흔적만 남아 있는데 그 래도 주변 운치와 정말 잘 어울린다.

다시 부지런히 하산해서 백세문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등산의 진짜 묘미를 즐기러 갈 시간이다. 바로 등산 후 주린 배를 채워줄 한 끼 식사를 하러 가는 것이다. 백세문 앞 건널목을 건너 원자력 병원을 지나 내려가다 보면 식당들이 모여있는 삼거리가 나온다. 삼거리 끝에 위치한 김밥천국 옆 봉평메밀촌이 오늘의 등산 코스 마무리로 완벽하다. 시원한 메밀 막국수 한 그릇은 산을 오르며 같이 울



라간 몸의 피로도를 차갑게 식혀준다. 혹시라도 다른 메뉴가 먹고 싶다면 주변을 둘러보면 된다. 각각각색의 음식점이 즐비해있다.

마지막으로 불암산 백세문 산행 전 준비는 철저해야 한다. 산이라는 특성과 봄이라는 계절을 모두 고려해 적절한 의류와 충분한 식수 준비는 필수다. 또 흙과 계단이 많아도 산은 산이기에 등산화는 착용하고 등산 전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

이번 주말, 가벼운 배낭을 메고 부담 없이 불암산 백세문의 자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지금까지 기자들이 직접 경험한 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각각각색의 장소와 방법을 소개했다. 생명력이 넘치는 시기인 만큼 기자들도 한껏 봄의 향취에 빠져 취재를 진행했다.

역사의 고즈넉함과 현대의 미가 섞여 마성적인 매력을 내뿜는 문래동 골목길에서 기자가 직접 방문해 느낀 골목의 역사와 그 아름다움이 잘 전달됐을 것이다. 따르릉따르릉 벨 소리처럼 청명한 안양천을 느낄 수

있는 따릉이 루트는 그 청명함과 시원함을 생생히 보여줬다. 또 도시의 낭만을 한껏 담은 드라이브 코스와 초보자도 오르기 쉬운 등산 루트는 도시와 봄의 다양한 모습을 풍부히 제공했다.

기자들이 취재하고 글을 쓰며 느낀 행복감이 글자와 사진을 넘어 향기로 전해졌을까? 활기참과 만족감 등 다양한 감정과 직접 발로 뛰며 가져온 이야기들이 각자의 고유한 형태로 학우 여러분에게 전해졌으면 한다.

꽃들이 자신들을 뽐내고 감춰지지 않는 열기가 서서히 머리를 들이치는 계절. 맑은 하늘과 초록빛 세상이 물들어있는 계절. 이 계절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은 우리 곁에 당연히 남아 있는 봄도 곧 여름의 열기에 밀려 자리를 내주고 말 것이다.

긴 겨울의 끝과 무더위의 시작 전 그 중간에 끼어있는 봄. 마치 자연이 수고했고, 앞으로도 수고하라고 고행 사이에 끼워준 자그마한 선물 같은 봄을 알차게 보내

야 한다. 앞서 기자들이 각자만의 방식으로 봄을 즐겼듯 학우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대로 봄을 즐겨보면 어떨까?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이번 봄을 행복하게 즐겨 본다면 분명 포근한 봄과 같은 미소가 입가에 남을 경험 이 될 것이다.



놀이하는 인간, 신명 나는 축제 - 대학 축제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

이복규 (문화콘텐츠학부 명예교수)

대학시절을 회고할 때면, 축제의 추억이 떠오른다. 문학회 회장으로 서 '문학의 밤' 과 '사회전' 을 기획하고 준비했던 일, '쌍쌍파티' 라 하여 이성 친구를 초청해 여러 프로그램에 함께하기 등 어제처럼 생생하다. 축제가 없었다면 대학생활이 얼마나 삭막했을까 싶다.

그런데 요즘 적잖은 대학생들이 축제에 미온적이라고 한다. 취업 준비로 바쁘다는 이유,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 혹은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일' 처럼 느껴진다는 이유 때문이란단다. 과연 그럴까? 대학 축제는 정말 시간낭비이거나 일부 활동적인 학생들을 위한 행사일까?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 요한 후이징거(Johan Huizinga)는 1938년 저서 『호모 루덴스(Homo Ludens)』에서 인간을 '놀이하는 존재' 로 정의했다.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호모 사피엔스)' 나 '만드

는 존재(호모 파베르)' 로만 규정하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문화 그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띠며, 놀이아말로 인간 문명의 핵심 동력이라는 것이다. 후이징거에 따르면 진정한 놀이는 일상의 시공간 바깥에 존재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규칙이 있으며, 공동체적 긴장과 해소를 포함한다. 대학 축제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축제의 공간과 시간은 강의실과 도서관의 논리와는 다른 질서로 작동한다. 그 안에서 학생들은 경쟁이 아닌 유희의 문법으로 서로를 만난다.

후이징거의 이론은 한국의 전통적인 신명놀이 문화와 놀이를 만류공명한다. 신명(神明)이란 단순한 흥겨움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 깊숙이 억눌린 에너지가 집단적 놀이를 통해 터져 나오는 고양된 감정 상태이자,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정신적 경험이다. 두

레, 농악, 탈춤, 씨름판 등, 우리 선조들은 노동과 일상의 긴장을 이 신명 속에서 풀어냈다. 신명풀이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 가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사회적 위계를 일시적으로 해체함으로써 평등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의례였다. 탈춤의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축제의 시공간이 허락하는 전복의 자유 때문이었다. 일제에 의해 통제당하기 전까지, 탈춤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시간과 공간이기도 했다.

오늘날 대학 축제는 바로 이 신명풀이의 현대적 계승이다. 학점과 스펙, 취업 시장의 냉혹한 경쟁 논리가 지배하는 대학 생활 속에서, 축제는 그 모든 위계와 압박이 잠시 유예되는 해방구다. 선배와 후배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전공도 학번도 잠시 내려놓은 채 푸스 음식 앞에 줄을 서는 그 순간, 캠퍼스는 하나의 마당이 된다.

그렇다면 축제 참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가. 첫째, 공동체 회복이다. 비대면 수업과 개인화된 생활 패턴 속에서 대학생들은 점점 고립되고 있다. 축제는 흩어진 구성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우리' 라는 감각을 되살린다. 이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소속감과 정체성의 회복이다. 둘째, 창의성과 주도성의 발현이다. 축제를 자율적으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이다. 부스를 꾸리고, 공연을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일련의 경험은 어떤 강의실 수업도 대체하기 어려운 살아있는 교육이다. 후이징거가 강조했다, 놀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문화를 창조하는 행위다. 셋째, 정서적 건강이다. 대학생 정신건강 위기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금, 신명풀이적 집단 경험은 개인이 혼자 짊어

지던 감정의 무게를 공동체와 나누는 치유의 기능을 한다. 함께 소리 지르고 웃고 어우러지는 경험은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높인다. 물론 반론도 있다. 화려한 연예인 초청과 상업적 부스로 채워진 축제가 과연 진정한 놀이인가, 하는 의문이다. 타당한 지적이다. 후이징거 역시 놀이가 상업화되고 도구화 될 때 그본질이 훼손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는 축제를 외면할 이유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축제의 내용을 바꿔야 할 이유다. 신명은 구경꾼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마당에 직접 뛰어든 사람에게서 나온다.

대학은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는 장이다. 전인적인 성장은 강의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전 구성원이 함께하는 축제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자.

| 기자의 눈 |

'귀여움' 에 흔들리는 소비, 우리는 왜 콜라보에 지갑을 여는가

최근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소비 전반을 이끄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만 10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1년간 캐릭터 상품 구매 경험이 8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캐릭터가 단순한 디자인 요소를 넘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업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브랜드 간 차별화가 어려운 시장 포화 속에서, 기업들은 이른바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를 적극 활용한 협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를 활용할 경우 기존 팬층을 기반으로 높은 주목도와 소비를 동시에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캐릭터 IP를 활용한 콜라보 제품은 '소장 가치' 와

감정적 만족' 을 동시에 자극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화장품 업계에서도 캐릭터 협업은 중요한 판매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다양한 캐릭터와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비교적 명확하다. 이러한 캐릭터 협업 마케팅이 주요 소비층인 여성과 동성 대미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캐릭터라는 요소가 단순한 부가 요소를 넘어, 실질적인 소비 촉진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통계에만 국

한되지 않는다. 기자 역시 새로운 콜라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이미 충분한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올리브영 앱을 둘러보거나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파우치나 키링과 같은 증정품이 특정 후수에만 한정되어 제공되는 경우, 원하는 색상보다 증정품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다. 소비의 기준이 '필요' 가 아닌 '구성' 으로 이동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 행태에 대해 경제신문에 따르면, 특히 CJ Olive Young(이하 올리브영)은 지난해 산리오 캐릭터즈와 팜마트 코리아 협업에 참여한 브랜드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캐릭터라는 요소가 단순한 부가 요소를 넘어, 실질적인 소비 촉진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이다.

이와 관련해 명동의 한 올리브영에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 김 모 씨(23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씨는 "기존에 큰 인기를 끌지 못하던 제품이라도 캐릭터와 협업해 출시되면 소비자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며 "최근에는 협업 제품 색상보다 증정품이 포함된 형태를 선택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다. 소비의 기준이 '필요' 가 아닌 '구성' 으로 이동하는 순간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꼭 필요해서 구매한다기보다는, 콜라보 제품이 매장에서 가장 눈에 잘 띄도록 진열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고 테스트를 하다가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제품 자체보다는 협업 요소나 증정품을 얻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화장품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브랜드들이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협업을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다.

우리는 과연 캐릭터라는 '겉 포장'에만 주목한 채, 제품의 본질적인 가치와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혹은 한정판이라는 희소성과 귀여운 이미지에 이끌려, 필요 이상의 소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소비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어떤 기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 역시 필요하다.

캐릭터 협업은 분명 즐거운 소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무의식적인 소비로 이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합리적인 소비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제는 '무엇을 사느냐' 보다 '왜 사느냐' 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김나연 객원기자 (nykim0130@skuniv.ac.kr)

| 기자의 눈 |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세대교체의 사전적 의미는 신세대가 구세대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시지에는 끝이 있으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은 결국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 이 시대에서 구세대는 아쉽게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세대교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교체' 가 아니라 '과정' 이다. 구세대는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 충실히 인수인계해야 한다. 신세대는 이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더불어, 신세대만의 개성도 같이 살리며 세대를 이끌어 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일반적으로 한국 전쟁이 끝난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붐 세대로 분류한다. 현재 베이비 붐 세대는 은퇴를 앞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X세대와 MZ세대가 이 자리를 이어받아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다.

이 같은 흐름은 연예계와 스포츠계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과거 1세대 아이돌 s.e.s와 H.O.T 등이 2세대 아이돌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등으로 세대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3세대 아이돌로 분류되는 트와이스, 레드벨벳 등도 마찬가지

로 이를 계승해 성공적으로 2010년대 후반을 대표했다. 이후, 이들은 활동빈도를 줄이며 4세대 및 5세대 후배들에게 자연스럽게 세대를 넘겨줬다.

스포츠계에서는 2010년대 축구를 대표했던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어느덧 커리어 황금기에 접어들었다. 현시점에서 이들의 위상을 뛰어넘는 선수는 냉정하게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킬리안 음바페, 라인 야말, 엘링 홀란드 등 젊은 선수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 선수들은 메시와 호날두의 위상을 존중하면서도 자

신만의 플레이 방식과 현대 축구의 흐름을 모두 적용하면서 세대교체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 스포츠에서도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다. 한국 축구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손흥민은 어느덧 30대 중후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손흥민의 뒤를 이을 선수로는 파리생제르맹(PSG)에서 멀티플레이어로 활약 중인 이강인과 벡시타슈JK에서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오현규가 유력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야구도 마찬가지로 류현진과 김광현 등 기존 스타들이 물러날 시기

를 맞이하고 있다. 이들은 MLB에 진출해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정후, 김하성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렇듯 세대교체는 사회 전반을 비롯해 연예계, 스포츠 등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중요한 것은 물러나는 세대는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품격있게 마무리해야 한다. 새로운 세대는 이들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자신들만의 방식을 더해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규가 유력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야구도 마찬가지로 류현진과 김광현 등 기존 스타들이 물러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들은 MLB에

김호성 기자 (hosung@skuniv.ac.kr)

| 기자의 눈 |

전쟁의 열기 속에서 통일의 향기를 찾길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초등학교 시절 음악 과목에서 배우던 노래가 십수 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귓가에 맴돈다.

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염원은 언제나 높았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통일을 향한 우리의 무수한 노력을 가로막고 가교 대신 철책을 세워 반도를 반으로 갈라놨다.

지금 세상은 전쟁의 열기를 서서히 느끼는 중인 것 같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이란을 공격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혈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한 명분은 이란의 핵 개발 때문

이라고 한다. 적어도 미국 정부는 이란의 핵 개발을 자신들의 전쟁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 같다.

물론 이란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기 전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압도적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패거리를 이뤘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생체기 하나 없이 데려온 것이다.

한 국가의 수장을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생포해 자국 땅으로 데려온 미국의 군사력은 정말 경이롭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이란은 베네수엘라와 달리 미국의 공격에 대비한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군대를 육성하지만, 이란은 미국에 핵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제재를 받고 있었기에 군대의 목표가 명확했다.

또 이란이 신성일치 국가라는 점이 이란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이유인 것 같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면서 몇 시간 만에 그들의 최고지도자를 암살했다. 그러나 앞서 서술했듯 이슬람 국가들은 이란의 무차별 공격과 신의 지대라는 이란의 특성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장기전 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을 해 보자면 이번 전쟁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하는 시작점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자.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통일은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 새로운 수출길을 만들어준다. 또 부족한 자원과 인력을 어느 정도 보강해 준다.

이처럼 통일은 수많은 이점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그에 걸맞은 비용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임을 명심하면 좋겠다.

유승윤 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만/파/식/적

신임 편집장의 '빙산' 녹이기 프로젝트

신세 한탄부터 전쟁에 관한 내 생각을 가감 없이 적다 보니 어느새 제법 글이 글은 쓰는 게 익숙해지고 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서경대신문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적응을 시켜야 하는 처지가 됐다.

수습기자에서 바로 편집장으로 간 이 사례는 이제 다른 학보에도 생길 것 같다. 이미 생겼을지도 모른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에 가서 다른 학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담하다. 인력난은 기본이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부딪쳐있기도 한다. 두 명이 신문 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지난 4월, 다른 학보사 편집장이 전한 문장이 인상 깊었다. "만드는 이들이 사라져 갑니다." 대학 언론의 위기가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부에서 오고 있다.

이 위기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부에서 끈끈하게 뭉쳐야 한다. 함께 고생하고 있는 동기, 선배, 후배 기자들이 하나가 돼야 한다.

현재 서경대신문은 종이로 발행되지 않는다. 디지털 세상의 데이터로 학우와 만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본질인 구성원과의 소통과 정보 전달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차피 아무도 안 보." "바쁘다고 더 보겠어?" 신문의 변화를 즐지 생각하면 항상 따라오는 잡념이다. 자신감도 없고 쉬운 길을 택하기 위해 바꾸는 것을 망설였다.

이번 599호에선 정말 작은 변화를 줬다. 기획 면에 자체 설문지를 시조 해 통계를 낸 것이다. 내 입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참여율이 저조할 것을 예상해 커피 쿠폰을 보상으로 내세웠다. 우려와 달리 무려 80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 어느 날 강의실을 갔더니 같은 과 동기들이 다들 설문지에 참여했다며 말을 건네기도 했다.

한 동기는 항상 신문 잘 보고 있고, 재밌다고 나에게 말한다. 중앙운 영위원회에서도 신문을 보고 피드백을 해준다. 598호를 보곤 응원을 남기신 교수님도 계셨다.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는 독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원동력 삼아 이번 학기도 잘 마무리할 것이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활발히 서경대신문을 알리고, 전임 편집장의 숙원 사업까지 해내는 게 목표다. 여기에 더해 신문사 내부를 튼튼하게 만들고 선배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직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도 있다. 직접 발로 뛰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

눈에 보이는 시스템인 '빙산의 일각' 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거대한 얼음' 인 고경관념과 태도를 녹이는 것이 올 한 해의 숙제인 것 같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 스타일대로 나아가겠다. 부디 나의 행동이 구성원에게 좋은 영향이 되길 바란다.

심화평 기자 (marksim@skuniv.ac.kr)

사설

등록금 인상 도미노... 대학가 긴장

최근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대학 등록금 인상 논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과 함께 교육 물가도 점차 인상되는 추세다. 정부는 2012년부터 대학에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대학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 인상보다 정부 지원금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많은 대학이 동결보다는 인상을 의치며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소비자 물가뿐 아니라 교육 물가와 최저임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시설 유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교육 및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의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작년 대학 등록금은 전년 대비 4.1% 상승했다. 4년제 대학 193곳 중 13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문대학 역시 129곳 가운데 94곳이 등록금 인상에 동참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작년 5.49%에서 3.19%로 약 1.2배 하향 조정했다. 더불어,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초과하면 입학정원 감축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학은 재정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한국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회원대학 151곳의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이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9%가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참고로, 이렇듯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등록금 동결 및 하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 인상을 바라보는 의견은 엇갈린다. 본지 인터뷰에 응한 직장인 A 씨는 "물가상승률에 맞춰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대하고 이에 뒤처지지 않는 교육을 고려하고" 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대학도 이에 맞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등록금을 인상해 수준이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는 등록금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본교 미래융합학부 1에 재학 중인 B 씨는 "물가가 상승하면 대학뿐 아니라 소비자도 함께 타격을 입는다. 대학생은 학생 신분이지만 어엿한 성인으로서 책임이 뒤따른다. 각종 교재비와 자취비 등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 고 토로했다. 이어 "아르바이트 등으로 벌이를 하지만 수익에 비해 지출이 많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여기에 등록금까지 오른다면 학생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김호성 기자 (hosung@skuniv.ac.kr)

오늘의 책

Nice One Sonny -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손흥민



▲ 출처 : 브레인스토어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에 혜성처럼 등장해 많은 국민에게 본인의 이름 석 자를 각인시킨 선수가 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바로 손흥민.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하며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알렸다.

이 책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축구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손흥민의 축구 인생을 진솔하게 풀어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금은 수백억 원대 연봉을 받는 슈퍼스타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할 정도로 열악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훈련에 매진하며 기회를 모색했다. 그 결과 대한축구협회 장학생으로 선발돼 독일 함부르크SV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단한다.

설렘을 안고 간 독일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다. 먼 아시아에서 온 소년에게 동료들은 쉽게 패스를 주지 않았고, 인종차별도 여러 차례 겪어야 했다. 그는 모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자신을 아낌없이 지원해 준 부모님을 생각하며 독하게 마음을 먹는다.

언어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훈련이 끝나면 독일어 공부에 매진했다. 동료들이 자신에게 패스 하지 않자, 그들의 공을 뺏아 본인의 플레이를 만들어갔다.

적응을 마친 그는 경기장과 훈련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0년 10월 30일, 손흥민은 FC 쾰른과의 홈경기에 교체 투입돼 데뷔전을 치렀다.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토포스를 받아 골키퍼를 제친 뒤,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다. 함부르크 역사상 최연소 득점자로 남게 된 순간이었다.

함부르크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내던 중 그에게 다수의 빅클럽이 러브콜을 보냈다. 이에 손흥민은 과거 차범근이 활약했던 레버쿠젠으로 가기로 결심했고, 전설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레버쿠젠에서는 두 경기장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더욱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다. 이에 프리미어리그 강호 토트넘과 리버풀이 이적을 제안한다.

손흥민은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을 열망했고, 당시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인 400억 원을 기록하며 이적했다.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프리미어리그는 굉장히 거칠었고, 언어 문제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벤치에 머무는 시간이 점차 길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그는 이적을 요청하기도 했다. 자신이 좋은 모습을 보인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감독에게 전했다.

하지만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이 자신의 플랜에 명확히 있었다며 잔류를 설득했다. 토트넘에서의 두 번째 시즌, 그는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자신을 증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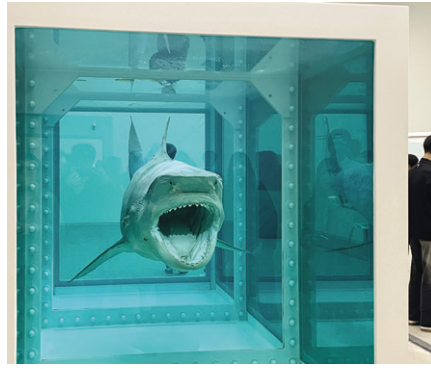
이후에도 꾸준히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활약을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포체티노 감독의 설득은 손흥민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이 책에는 손흥민이 경기장 위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노력의 과정이 담긴 일화들이 인상적으로 등장한다. 책을 통해 성공에는 후불이 없고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같이 일깨워보는 건 어떨까.

김호성 기자 (hosung@skuniv.ac.kr)

오늘의 전시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 **데이미언 허스트 개인전**



국립현대미술관은 영국의 미술가인 데이미언 허스트의 개인전을 아시아 최초로 개최했다. 전시는 3, 4, 5전시실과 MMCA 스튜디오에서 그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탄생시킨 작품들을 선보였다.

전시는 △모든 질문에는 의심이 따른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 △침묵의 사치 △작가의 스튜디오: 진행 중인 작업들(리버 페인팅)으로 구성돼 있다. 죽음과 영생, 과학, 의학에 대한 인간의 믿음과 욕망을 예술 가치와 시장 논리 등의 주제를 조망해 현대사회의 삶과 가치를 탐구한다.

1부 '모든 질문에는 의심이 따른다'는 작가의 20대 시절 작품이 주를 이룬다. 데이미언 허스트는 20대 초 대중에게 주목받은 후, 기성 제도와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작품들은 20대 시절 자신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 제작한 실험적인 작품들이 있었다. 본인의 첫 전시에서 선보인 10대 시절 사진과 주요 연작인 스팟 페인팅의 초기 버전인 <스팟 페인팅>이 전시돼 있었다.

다음은 2부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로 이어진다. 2부에서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실감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상을 다룬다. 죽음의 공포와 삶과 죽음의 순환을 시각화한 대형 설치 작품들이 전시됐다. 포름알데히드 용액이 담긴 유리 수조 속에 상어를 넣은 작품인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과 유리장 안에 소머리와 파리를 탄생시킨 작품들을 선보였다.

전시는 △모든 질문에는 의심이 따른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 △침묵의 사치 △작가의 스튜디오: 진행 중인 작업들(리버 페인팅)으로 구성돼 있다. 죽음과 영생, 과학, 의학에 대한 인간의 믿음과 욕망을 예술 가치와 시장 논리 등의 주제를 조망해 현대사회의 삶과 가치를 탐구한다.

1부 '모든 질문에는 의심이 따른다'는 작가의 20대 시절 작품이 주를 이룬다. 데이미언 허스트는 20대 초 대중에게 주목받은 후, 기성 제도와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예술

가 있었다. 인간의 두개골을 백금으로 주조하고 8,601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작품이 있었다. 영원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인 다이아몬드와 죽음을 의미하는 해골의 조합으로 끝없는 욕망과 삶의 무상함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실제 해골을 사용한 대담함과 빛에 따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인상적이었다.

이 외에도 전시 연계 퍼포먼스 프로그램인 '진행 중인 작업들(리버 페인팅)'은 2층에 있었다. 전시실은 데이미언 허스트의 런던 작업실을 재구성한 모습으로, 미공개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이 외에도 전시 연계 퍼포먼스 프로그램인 '말하지 않는 약국'과 전시 연계 상영 프로그램인 '데이미언 허스트와 YBA'도 진행된다. 데이미언 허스트가 아시아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진행하는 것이니, 기회가 된다면 가보길 권한다.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 전시기간 : 2026.03.20(금) ~ 2026.06.28(일)
- 전시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서울 종로구 삼청로 30)
- 관람시간 : 10:00 ~ 18:00 (수, 토 10:00 ~ 21:00)
- 관람비용 : 8,000원 (만 24세 이하, 만 65세 이상 무료)

오늘의 장소

자연과 문화를 한곳에서 즐기자 - **홍제폭포 & 카페폭포**



도심 속 자연과 함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카페 폭포가 제격이다. 홍제폭포를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폭포는 2023년 4월 1일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구민들을 위해 참고부지리 사용되던 공간을 새롭게 탈바꿈해 개방했으며 현재 월 방문객 2만 명 이상인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홍제폭포는 2006년에 시작된 홍제천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5년 만인 2011

년에 완공된 인공 폭포다. 내부순환로가 설치되며 매마른 홍제천을 물놀이 즐길 수 있을 만큼 복원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2011년 완공 이후 음악분수, 자전거 종합센터 등 각종 경관 및 편의시설이 설치·보수되며 2026년, 카페와 어우러진 지금의 홍제폭포로 자리 잡았다.

카페폭포는 널찍한 내부 공간 외에도 실외 테라스, 빈백, 벤치 등 앉을 자리가 넉넉히 조성돼 있으며, 미디어 전시관, 굿즈샵 등이 있는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와 이어져 있다. 2층 카페에서는 폭포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1층 복합문화센터의 미디어 전시관과 굿즈샵에서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카페의 음료들은 4~5천 원 대의 가격으로 형성돼 있는데, 특히 카페의 수익금은 카페 폭포 행복장학금으로 관내 학

생들에게 환원되고 있다.

또한 카페 옆 별도 공간에는 '폭포책방 아담인도서관'이 있다. 책방은 통유리창으로 대부분의 자리가 폭포를 바라볼 수 있게 배치돼 있어 운치 있는 독서를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전자책 이용이 가능한 태블릿 PC 공간과 개인 기기 충전이 가능한 콘센트 자리도 있다.

복합문화센터는 매일 10시부터 20시까지, 폭포책방은 매일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니 함께 둘러보면 더 좋은 경험이 될지도 모른다. 곧 다가올 무더운 여름, 폭포를 보며 마시는 시원한 음료와 함께 더위를 날려 보내는 건 어떨까?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2-248
- 운영시간 : 홍제폭포 - 매일 08:00~21:00 (폭포 가동 시간)
- 카페폭포 - 매일 09:00~21:00 (마지막 주문 마감 20:40)

오늘의 음악

H1-KEY가 전하는 **청춘의 메시지**

'건물 사이에 피어난 정미'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H1-KEY는 어느새 우정과 사랑 그리고 청춘을 자신만의 독보적인 감성으로 그려내는 아이돌로 자리 잡았다. 여름의 청춘과 겨울의 여운, 그리고 청춘의 낭만을 주제로 특유의 뻘찐 감성과 서사를 노래하는 H1-KEY가 그려낸 다양한 노래 중 '청춘'이 담겨있는 노래 세 곡을 소개한다.



▲ 출처 : 멜론

♪ <Heart Light> - H1-KEY

"매 순간 Highlight 꿈꾸는 Heart light 발 닿는 곳마다 낙원이 될 거야 모닥불 Firelight 붙여진 Heart light 너와 난 빛나는 불꽃이 될 거야 너와 난 영원한 우리가 될 거야"

경쾌한 기타 리프와 신시사이저 사운드가 어우러진 하우스 풍의 곡으로 우정 여행의 신나는 기분을 선사한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라면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아도 그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즐겁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지만 청춘은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선명하고 진한 감정으로 남는다.



▲ 출처 : 멜론

♪ <여름이었다> - H1-KEY

"난 내게 여름이었다 찬란하게 빛난 청춘이었다 뜨겁고 짧았던 그 기억들이 내 삶에 눈부신 한 것이 되었다"

기타 사운드와 강렬한 밴드 스타일의 곡으로 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뜨거웠던 청춘을 여름이라는 한 킷으로 기록하며, 여름 특유의 짜릿한 청량감을 선사한다. 서로의 청춘이 모여 만들어진 여름의 추억은 여전히 반짝거리며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

신시사이저 사운드와 일렉기타 그리고 드럼이 돋보이는 시티팝 곡으로 청춘의 낭만을 여실히 담아냈다. 눈을 마주치고, 함께 걷는 특별한 것 하나 없는 평범한 하루가 어느새 우리의 낭만적인 기억이 된다. 그렇게 한 장씩 쌓인 날들이 모여 가장 빛나는 청춘의 순간이 만들어졌다.



▲ 출처 : 멜론

♪ <낭만 한도 초과> - H1-KEY

"너로 물든 하룬 낭만 한도 초과 어쩌면 소설 속 사랑에 빠진 주인공 클리셰 같은 운명 서사 그런 뻘찐도 너와 함께라면 낭만이 넘친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오늘의 영화

광활한 우주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우정 - **프로젝트 헤일메리 (2026)**



▲ 출처 : 네이버 영화

2026년 3월 18일 개봉한 크리스 밀러, 필로드 감독의 Sci-Fi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앤디 위어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성공적으로 실사화한 영화다. 중학교 과학 교사였던 주인공 라이랜드 그레이스(이아 그레이스)는 기억을 잃은 채 태양계에서 아득히 떨어진 우주선 헤일메리호에서 홀로 눈을 뜬다. 낯선 우주선을 탐방하며 그레이스는 서서히 기억을 되찾는다. 결국 자신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타우 세티 항성계로 파견된 유일한 생존자임을 깨달은 그레이스는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다.

그레이스는 홀로 외로운 연구를 이어가던 중, 자신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타우 세티 항성계를 찾아온 외계 종족 에리다안의 우주선을 만난다. 그레이스는 언어도, 생물학적 구조도 완전히 다른 외계인 '로키'와 마주하지만, 두 사람은 과학을 통해 소통하며 서로의 항성계를 구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힘을 합친다.

이후 공동 연구 과정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열리는데 바로 '아스트로파지'의 천적인 '타우메바'를 발견해 인류와 에리다안 종족 모두를 구원할 희망을 찾게 된 것이다. 서로의 앞길을 응원하며 헤어진 뒤 그레이스는 타우메바의 돌연변이 문제로 인해 로

키의 고향 행성을 무사히 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한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레이스는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자신의 생존 기회를 포기하고 위기에 처한 로키를 도와 그의 행성을 구하는 이타적인 선택을 보여준다.

과학적 고증과 압도적인 시각 효과 면에서 대중의 찬사를 받은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달성하고 있다. 바로 스핀오프 시리즈인 <스그래비티> 등 경쟁한 우주 배경의 명작들을 잇는다는 호평을 받으며 2026년 상반기 할리우드 흥행수의 상위권의 자리를 굳건히 차지한 것이다.

더불어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활약은 국내에서도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내 개봉 후 2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Sci-Fi 장르 영화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주말 그레이스와 로키의 위대한 여정에 합류해 끝없는 우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유승윤 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오늘의 패션

하늘 아래 같은 '청바지'는 없다

최근 K-Pop 시장에 청량미 넘치는 그룹이 등장했다. 바로 보이그룹 '투어스(TWS)'다.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 뛰는 젊음과 설렘이 느껴지는 이 그룹은 유독 파란색을 좋아한다. 발매하는 앨범마다 파란색 이미지가 들어가고, 무대 의상에서도 푸른 계열이 두드러진다. 특히 데님, 그중에서도 청바지는 이들의 콘셉트를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아이템이다.

사실 이 '파란색'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만큼 푸르르지 못하다. 비록 하늘과 바다 등 자연을 담은 색이지만, 파란색은 염료 추출이 쉽지 않아 오랜 세월 동안 귀하게 여겨졌다. 대표적인 염료인 인디고의 재배와 염색 과정에는 식민지 노동 착취와 전쟁 자본주의의 흉터가 가득하다. 하지만 동시에 파란색은 안정, 신뢰, 자유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에서 성별을 무관하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색 중 하나로 꼽힌다.

이처럼 파란색은 억압과 해방, 경멸과 사랑이라는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품는다. 그리고 이 복합적인 역사와 의미를 담은 파란색은, 그대로 청바지라는 옷에 스며들었다.

청바지의 기원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천막 천 생산업자였던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우연한 기회로 광부들을 위해 내구성 강한 바지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데의 콘셉트를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아이템이다.

사실 이 '파란색'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만큼 푸르르지 못하다. 비록 하늘과 바다 등 자연을 담은 색이지만, 파란색은 염료 추출이 쉽지 않아 오랜 세월 동안 귀하게 여겨졌다. 대표적인 염료인 인디고의 재배와 염색 과정에는 식민지 노동 착취와 전쟁 자본주의의 흉터가 가득하다. 하지만 동시에 파란색은 안정, 신뢰, 자유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에서 성별을 무관하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색 중 하나로 꼽힌다.

이처럼 파란색은 억압과 해방, 경멸과 사랑이라는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품는다. 그리고 이 복합적인 역사와 의미를 담은 파란색은, 그대로 청바지라는 옷에 스며들었다.

청바지의 기원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천막 천 생산업자였던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우연한 기회로 광부들을 위해 내구성 강한 바지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데의 콘셉트를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아이템이다.



▲ 출처 : winter's lemonade

스프레슬리 역시 무대에서 이를 착용해 자유와 깨기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이후 1960~70년대에는 반전 운동과 히피 문화 속에서 저항과 해방의 아이콘으로 기능했다. 당시 우리나라 역시 통기타, 포크 음악과 함께 청바지는 청년 문화의 상징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개성 소비 문화의 확산 속에서 보다 다양한 스타일로 분화하며 패션 아이템으로 입지를 굳혔다.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 의미를 달리해온 청바지는 재질과 형태 역시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튼튼한 작업복으로 신축성이 없고 두꺼웠던 원단은 합성 섬유와 혼합하거나 워싱 작업을 거쳐 보다 부드러워졌다. 바지의 실루엣도 스키니진, 스트레이트 핏, 최근 다시 유행하는 와이드 핏까지 시대의 미감과 가치관을 반영하며 변화했다. 같은 '청바지'라는 범주 안에서 수많은 보기가 존재하는 이유다.

흥미로운 점은 '청바지'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의미로 재해석되며 하나의 유행어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말장난에 불과해 보이지만, 절묘하게도 청바지가 상징해 온 젊음과 자유의 의미와 이어진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워싱과 핏, 색깔을 지닌 청바지처럼, 우리의 청춘 역시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될 수 없다. 하늘 아래 같은 청바지가 없듯, 같은 청춘도 없다.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닌 청바지가 나뉘거릴 때, 우리의 청춘도 각자의 빛으로 무르익어간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편집자주] 본 기사는 캐럴린 파넬의 '청바지'와 문우현의 '청바지 시론(2019)'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